

삼립빵

제자훈련이 있을 때마다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역시 빵입니다. 빵 중에도 한국 빵집에서 사온 빵이 제일 인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빵을 좋아하는데 그 중 속에 하얀 크림이 들어있는 빵이 제일 반갑습니다. 공보빵도 있고, 앙꼬 빵도 있지만 역시 저는 하얀 크림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어릴 적 기억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집을 나서면 큰 길이 있고 저 앞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먹는 것이 “삼립빵”이었습니다. 10원 하던 삼립빵은 저에게 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빵을 사서 봉지를 뜯으면 빵 두 개가 가운데 하얀 크림을 두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림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봉지를 열면서 늘 기대하기는 이전보다 크림이 더 들어있기를 소원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빵에 크림은 늘 그만큼 만 빵 중앙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빵 가장자리부터 먹어 들어가다가 크림이 있는 중간에 가서는 속도를 늦추며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빵을 몇 개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그 크림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크림만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빵에 얹어 먹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봉투를 연 그 빵에 크림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가장자리부터 먹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 습관과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첫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된 그 때입니다. 그것을 잊고 산다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빵이고, 크림 없는 빵이 되고 맙니다.

믿음생활을 할 때에 열정이 회복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이 회복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처음 믿을 때에 감격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라도 머리로 더 깨달아 신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맛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맛이 없어진 교회생활이 되며, 맛이 없어진 영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맛이 없어진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아니면 겨우 지탱하는 믿음생활은 아닙니까? 삼립빵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먹은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도, 혼란하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첫사랑이 늘 감격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하얀 크림빵을 먹을 것입니다. 저에게 삼립빵 만한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